

광주김장대전 역대 최대 매출 20억 돌파 '홍행'

프로그램 연중 운영…1만8000명 292t·판매액 17.3%↑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상생 앞장…택배 급증 전국 확대

광주시가 시민들이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열린 '빛고을 김장대전'이 매출 2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민참여형 김치나눔·판매 행사인 2025 빛고을 사랑나

눔 김장대전에 기관·단체·시민 등 1만 8000여명이 참여해 총 292t, 20억8000만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에는 3400여명이 참여, 24t, 2억290만원 상당의 김치를 판매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

행한 김치대전 본행사에는 1만4000여명이 참여해 268t, 18억7000여만원 상당의 판매고를 올렸다.

2014년 첫 개최 이래 최고 실적으로, 지난해 17억7000만원(275t)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참여인원과 매출액이 모두 늘며 김장대전 성장세를 입증한 것으로, 광주김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택배 주문 금액이 전년보다 47.1% 늘

어 광주김치에 대한 전국 수요 확대와 함께 김치 소비문화 변화를 확인했다. 광주국세청 등 53개 기관단체가 31t을 취약계층에 기부해 나눔으로 확장하는 성과도 거뒀다.

김장대전에 사용된 배추·소금·고춧가루·멸치액젓은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구매해 활용했다.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개발한 조리법을 적용, 품질 신뢰도도 높였다.

현장 버무림 김치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6만6000원(10kg 기준)에 제공돼 호응이 있고, 주말에는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연중 김치담그기 프로그램과 본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운영 전략이 광주김치 충성 고객 확보와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주재희 시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절차별 품질관리와 고객 중심 운영으로 김장대전을 대표 김치 브랜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 생성형 AI 아이디어 경진대회

전 분야 AI 솔루션 발표

전남개발공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17일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점검하고 AI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2회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AI 아트 첼린지'를 개최했다. 전 부서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공사의 핵심 가치인 청렴과 안전을 AI 기술과 결합해 AI 전환(AX) 시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진대회에는 11개 부서가 참여해 실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AI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AI와 노코드(No-Code)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세무 매뉴얼 AI 챗봇' 등은 행정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

고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함께 'AI 기반 택지개발 시각화 혁신', '현장 공정 안전일지 AI 자동화 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솔루션도 제시됐다.

기술 경쟁과 함께 공공기관의 가치를 확산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AI아트 철린지도 병행됐다. 직원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청렴과 안전의 미래상을 시각화하며, 공의적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대회는 임직원들이 축적해 온 디지털 역량이 실무 혁신과 조직문화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AI 전환을 선도하는 조직문화 혁신 사례를 선보였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17일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을 점검하고 AI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2회 생성형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AI 아트 첼린지'를 개최했다.

5급 3특 균형정책 대응 대학교육 방향 모색

광주시의회-광주RISE센터, 정책포럼 개최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광주RISE센터는 18일 시의회에서 '5급 3특 균형정책과 AI 인프라 집적 대응 대학교육 혁신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교육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송년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위원의 '5급 3특 균형정책과 대학-지역 상생방안'과 박진진 전남대학교 교수의 'AI 인프라 집적에 따른 지역 대학교육 혁신 방향'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강수훈 광주시의회 AI 특별위원장, 이은경 호남대학교 교수, 신현성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황성웅 광주연구원 AI정책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김송년 위원은 "5급 3특 전략의 핵심은 산업과 인재, 정주 여건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지역 주도형 성장체계에 있다"며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 인재 양성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이어 박진진 교수는 "광주가 보유한 국가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집적의 다음 단계는 하드웨어 확장이 아니라 교육·인재·활용 중심으로의 전략 전환"이라며 "AI 기반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산업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AI 인프라를 산업 및 교육 실증의 장으로 활용하는 전략, 조광 역 RISE 협력 모델 구축, 프로젝트·현장 중심 교육 확대, AI 인재의 지역 정주를 고려한 교육·일자리·생활 연계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RISE 사업이 AI·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 교육 혁신을 지역 혁신 생태계로 확장하는 실행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유파웠다.

김보현 광주RISE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본격화되는 5급 3특 균형정책과 AI 인프라 집적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교육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肯텍 연구진, 전해질 공학 기반 촉매 재생 전략 개발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의 고질적인 한계였던 '촉매 비활성화' 문제 해법을 국내 연구진이 제시해 주목된다.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肯텍)에 따르면 최근 김우열 교수 연구팀이 촉매 비활성화 문제의 원인을 '촉매 파괴'가 아닌 전해질 환경에 의해 촉매가 일시적으로 오염된 상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규명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전해질 공학 기반 촉매 재생 전략을 개발했다.

암모니아는 액체 상태로 저온·운송이 쉬워 차세대 수소 운송체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존 기술은 500도 이상의 고온 분해 공정에 의존해 에너지 소모와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전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광전기화학 암모니아 산화 반응(AOR·Ammonia Oxidation Reaction)은 상온·저전압 조건에서 수소 생산이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반응 시간이 지날수록 촉매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비활성화 문제가 상용화를

가로막아 왔다.

연구팀은 촉매 성능 저하의 핵심 원인이 물 기반 전해질 환경에서 생성되는 질소산화물(Nox) 중간체에 의한 '표면 중독 현상'임을 밝혀냈다. 촉매 자체가 파괴된 것 이 아니라, 반응 부산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능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기존 물 기반 전해질 대신 비수게 용매인 아세토니트릴(MeCN)을 적용해 비스무트 바나이트(BiVO4) 광양극에서 Nox 촉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그 결과 수계 조건 대비 수소 생산 효율이 최대 6.9배 향상됐다. 특히 한 번 성능이 저하된 촉매도 다시 초기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는 '촉매 재생(catalyst regeneration)' 현상도 확인됐다.

실제 물 기반 전해질에서 BiVO4 전극은 1시간 이내에 광전류의 약 90%를 잃지만, 구조적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촉매가 영구적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표면이 반응 부산물로 오염된 상태

이며,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김치가 지닌 문화적 가치와 과학기술을 지녀 사회 및 김치산업 현장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연구소는

족적된 공공 연구 성과를 지역 현장과 연결하며, 지속 가능한 김치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해춘 소장은 "매시온 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작은 정성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김치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이전한 첫해인 2012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을 매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이불과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촉매를 소모품처럼 교체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전해질 환경을 주기적으로 제어해 촉매를 스스로 세척하고 되살리는 운전 전략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연료전지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박철우 켄텍 박사후 연구원과 곽혜림 학생(지도교수 김우열)을 중심으로 구근호 켄텍 교수, 문건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박현웅 경북대 교수 등이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독일화학회(GDCh)가 개최하는 세계적 화학 저널 양기화학 케미 국제판에 게재됐다. 이인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인자위 하반기워크숍
청년유출 방지 해법 모색

광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최근 워더스 광주에서 '2025년 하반기 광주지역 인력양성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직업훈련기관 및 직업계고등학교를 포함한 인력양성기관 담당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 하반기 동안 광주인자위의 수요조사 결과에 기반,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광주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백경호 전임연구원은 강의를 통해 인력양성-양질의 일자리-청년 정주여건 개선의 3축 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백경호 연구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일가장 양립(워리밸)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한 메가시티 등 청년 친화적 사회 인프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에서는 '광주인자위 훈련기관 현황 및 수요 전망'·'주정방식 설명'과 '2025년 직업계고 취업선호도 조사·연구' 및 '2025년 제조업의 인력자원 전환(AX) 실태조사·연구' 결과 등이 발표됐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훈련 직무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재난대응 방안 모색
농어촌 물포럼서 기술·전략 논의

농어촌공사는 최근 충북 오송에서 '2025년 농어촌물포럼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와 농어촌용수 관리'를 주제로 상습 침수 원인을 진단하고 재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 학계, 농업인 단체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맹승진 충북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김인중 농어촌공사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제중앙연합회장의 축사와 환영사가 이어지며 문을 열었다.

주제 발표에서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 등 재난 대응 위한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2025년 썰전의 의의'를 통해 올해 2차례 진행된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이광아 충남대 교수는 '뉴노멀 기후변화 농경지 상습 침수의 원인과 대책'에서 부여군의 사례를 들며 "농경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자동화 배수장 운영체계 도입과 과감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히"고 강조했다.

박진현 공사 수자원관리처장은 '농업생산기반분야 재난 대응 강화방안' 발제에서 공사의 재난 대응 사례와 앞으로의 종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문용주(주) 삼안부사장은 '복합 영농지역의 배수로를 고려한 배수체계 분석기법' 발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종합 토론회에서는 김상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관계 부처, 공사, 학계, 농업인 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통합 배수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물관리에 농업 분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